



박지성

아스널 상대 시즌 2호골 쏜다

22일 새벽 1시 원정 경기

지난 해 4월1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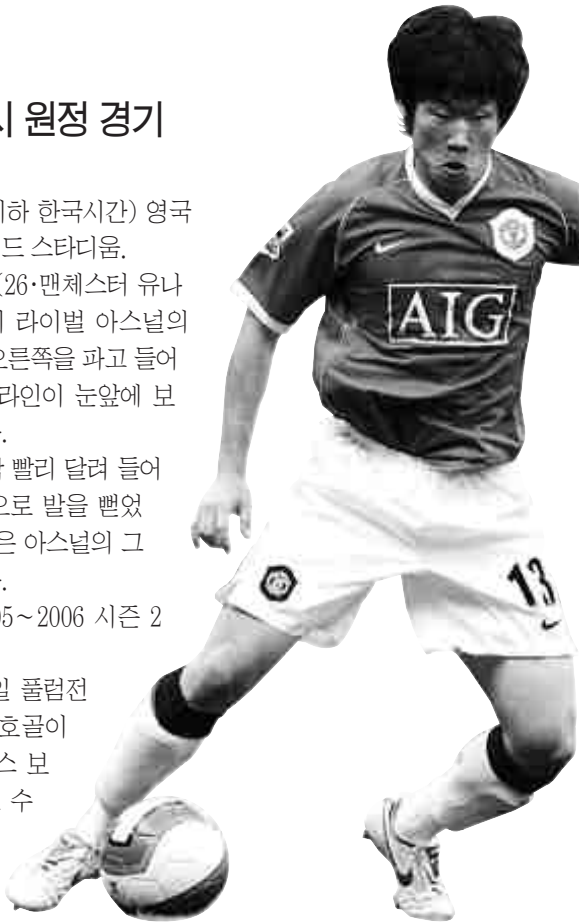
‘파워 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라이벌 아스널의 문전으로 쇄도했다. 오른쪽을 파고 들어간 웨인 루니는 엔드라인이 눈앞에 보이자 크로스를 올렸다.

수비수보다 반 발짝 빨리 달려 들어간 박지성은 본능적으로 발을 뻗었다. 오른쪽발에 걸린 볼은 아스널의 그물을 세차게 흔들었다.

박지성은 당시 2005~2006 시즌 2호골을 뽑았다.

그러나 작년 2월5일 풀럼전에서 터트린 시즌 1호골이 풀럼 수비수 카를로스 보카네그라의 자책골로 수정되면서 아스널전 득점이 박지성의 첫 골이 됐다.

당시 대결은 에마누엘 아데바요르(토고), 필리페 센데로스(스위스), 티에리 앙리(프랑스)가 아스널 멤버로 출동해 독일 월드컵축구 전초전으로 불렸다.



맨유는 아스널을 잡고 선두 첼시에 추격을 했지만 결국 리그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맨유-아스널전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달리 영국 축구 팬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는다.

박지성이 팬들에게 기억되는 장면도 아스널전이 가장 뚜렷하다.

지난 14일 에스턴 빌라전에서 지독한 골 가뭄을 씻어낸 박지성이 22일 오전 1시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다시 아스널을 만난다.

박지성은 시즌 올 시즌 2호골에 도전한다. 아스널은 12승6무5패로 4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박지성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던 지난 해 9월18일 아스널은 아데바요르의 결승골로 맨유를 1-0으로 격침했다. 맨유의 이번 시즌 첫 패배였다.

지난 해 12월17일 웨스트햄전에서 복귀한 박지성은 이후 6경기 중 5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일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고 팀의 세 번째 골도 상대의 볼을 가로채 다리를 놓는 등 3골에 모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동국 잉글랜드행 조만간 마무리”

英 스카이스포츠 보도

“구단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만간 잘 마무리될 걸로 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 입단을 추진 중인 이동국(28·포항 스틸러스)의 이적 협상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고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가 현지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동국을 ‘아시아의 에이스’라고 표현한 스카이스포츠는 “미들즈브러가 소속팀 포항과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 이동국의 이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캄(KAM) 인터내셔널의 데니

스 다시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구단이 조건에 합의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동국의 계약 조건은 먼저 구단간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지만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국이 아직 영국에 있고 협상이 잘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스포츠는 이동국이 지난 몇 주간 미들즈브러에서 입단 테스트를 가졌는데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계약할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18일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파라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2007' 개막식에서 성화가 타오르고 있다. 개막식장이 실내인 탓에 성화는 천과 조명을 이용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계 U대회 광파르 한국 종합 2위 목표

전 세계 대학생들의 ‘겨울축제’인 제23회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18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파라올림픽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11일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다.

52개국에서 1천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남자 피겨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73개 세부 종목)에서 총 73개의 금메달을 놓고 메달레이스를 벌인다.

52개국 선수 1,500명 참가

총 73개 금 놓고 열전 11일

한국은 5개 종목 총 123명(선수 89명, 임원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005년 인스브루크대회에서 거둔 종합 2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금메달 효자’종목은 단연 쇼트트랙. 지난 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쇼트트랙은 2007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2진급’을 출전시켰지만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계주 금메달리스트 강윤미(한국체대)와 성시백(연세대), 이승훈(광문고) 등이 버터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500m 동메달리스트 이강석(한국체대)과 여자 빙속의 기대주 이상화(한국체대 입학예정)가 출전해 전망이 밝다.

이밖에 2003년 타르비시오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키점프 K-90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거둬 올렸던 최흥철, 최용직, 김현기(이상 대한스키협회), 강철구(한국체대) 폼비가 또 한번 의기투합해서 금 사냥에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금)

- ▲여자농구 겨울리그(우리은행-국민은행)(13:50·SBS스포츠)
- ▲대학장사씨름 5차대회 용장급(14:00·MBC ESPN)
- ▲프로농구(모비스-전지랜드)(18:50·SBS스포츠), <KTF-오리온스>(18:50·Xports)

20일(토)

- ▲PGA투어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3R(05:00·SBS스포츠)

한국축구 FIFA 랭킹 51위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석 달 연속 제자리에서 머물렀다.

한국은 17일(현지시간) 발표된 2007년 새해 첫째 FIFA 랭킹에서 지난해보다 1점이 낮은 574점을 얻었으나 순위는 변동 없이 5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달 연속 51위.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에서는 이란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3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지켰다.

호주가 39위, 우즈베키스탄이 45위, 일본이 46위로 뒤를 이었고 북한은 무려 20계단이나 떨어져 133위로 밀려났다.

‘삼바군단’ 브라질이 세계 최강 자리를

3개월 연속 변동없어 브라질 1위, 일본 46위

관계 지친 가운데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역시 지난 달과 같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잉글랜드와 자리를 바꿔 5위가 됐다. 다음달 7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갖는 그리스는 16위를 지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나우두 AC밀란 이적 합의” 스페인 스포츠신문 보도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두(31·레알 마드리드)가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AC 밀란으로 이적하는데 합의했다고 스페인 스포츠신문 ‘마르카’가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 인터넷판은 호나우두의 대표 대리인 파비뉴 하라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

드(스페인)와 합의에 도달해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C 밀란은 호나우두를 6월까지 임대 방식으로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AC 밀란 부회장은 “호나우두는 평소 꿈꿔왔던 선수”라며 “레알 마드리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997~2002년 인터 밀란에서 뛰 호나우두는 AC 밀란 입단이 확정되면 5년만에 이탈리아 무대에 되돌아가게 된다.

국채적립금

국채적립금이란 국가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민들이 저축하는 금이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이란 국가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민들이 저축하는 금이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이란 국가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민들이 저축하는 금이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 국채적립금의 수익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다.